

<2025학년도 9월 모의평가 1~3번>

독서 이론 - 시각 자료가 포함된 글 읽기

- ① 문자 정보, 이미지 정보  
→ 상호 보완적 기여
- ② 목적에 따른 '시각 자료' 구분
  - 예시적: 글 내용 시각화
  - 설명적: 예시적 + 글 내용 보완
  - 보충적: 글 주제와 관련, 글에 없는 내용 추가
- ③ 시각 자료를 포함한 글을 읽을 때의 태도
  - 글의 내용과 시각 자료의 관계 살피기
  - 시각 자료로 강조된 중요한 정보 파악
  - 시각 자료의 적절성과 효과 판단

[주제] 시각 자료가 포함된 글의 특징과 읽기 방법

1. 세부 내용 파악 (91%)

**정답** ④ 시각 자료의 용도는 머릿속에서 처리되는 정보의 종류에 따라 구분된다.

- ①-③ 문자로만 구성된 글을 읽을 때 독자는 머릿속으로 문자가 제공하는 정보, 즉 '문자 정보'만을 처리하지만, 시각 자료가 포함된 글을 읽을 때는 '이미지 정보'도 함께 처리한다.
- ②-① 시각 자료는 글 내용과 관련하여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가에 따라 예시적, 설명적, 보충적 시각 자료로 구분할 수 있다.

⇒ 지문에 제시된 정보의 종류는 '문자 정보', '이미지 정보' 두 가지이다. 시각 자료는 이 중 '이미지 정보'를 제공한다. 따라서 시각 자료를 정보의 종류에 따라 구분된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시각 자료는 목적에 따라 '예시적', '설명적', '보충적' 시각 자료로 구분할 수 있다.

**오답**

- ① ②-⑤ 이 외에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거나 글 내용과 관련 없이 여백을 메우는 목적으로 장식적 시각 자료가 쓰이기도 한다.
- ② ③-① 글 내용과 관련된 시각 자료를 포함한 글을 읽을 때, 독자는 글의 내용과 시각 자료의 관계를 살피고 시각 자료로 강조된 중요한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
- ③ ③-④ 독자는 매력적인 시각 자료에 사로잡혀 읽기의 목적을 잃지 않고, 낯설고 복잡한 시각 자료도 읽어 내는 능동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⑤ ③-④ 독자는 매력적인 시각 자료에 사로잡혀 읽기의 목적을 잃지 않고, 낯설고 복잡한 시각 자료도 읽어 내는 능동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2. 세부 내용 추론 (87%)

**정답** ⑤ 문자 정보 처리와 이미지 정보 처리를 통해 연결된 정보를 독자가 떠올려야 글의 내용을 기억할 수 있다.

①-⑤ 독자가 문자 정보를 떠올리지 못할 때 이미지 정보가 단서가 되어 글 내용을 기억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 독자가 문자 정보를 떠올릴 수 있는 경우에는 이미지의 도움 없이 글의 내용을 기억할 수 있다.

**오답**

- ① ③-③ 이를 토대로, 독자는 글 내용과 이에 적합한 시각 자료를 종합하여 의미를 구성해야 한다.
- ② ①-④ 이 두 정보들은 서로 참조되면서 연결되어 독자가 글 내용을 이해하는 데 상호 보완적으로 기여한다.
- ③ ①-② 시각 자료가 글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견해에 따르면, 시각 자료는 문자 외에 또 다른 학습 단서가 된다.
- ④ ③-① 글 내용과 관련된 시각 자료를 포함한 글을 읽을 때, 독자는 글의 내용과 시각 자료의 관계를 살피고 시각 자료로 강조된 중요한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
  - ③-② 또한 시각 자료가 설명 대상이나 개념을 적절하게 표현하는지, 글에서 효과적으로 쓰이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3. 독서 방법 추론 (82%)

① '이집트의 기록 문화'라는 제목의 글을 읽었다. ② 제목 옆에 비행기 그림('이집트의 기록 문화'와 관련이 없음. → 장식적 시각 자료)이 있었다. ③ 글은 "파피루스 줄기를 잘라, 줄기를 가로세로로 겹치고 서로 붙여 종이를 만들었다."라는 내용만 있어서 이해하기 어려웠다. ④ 글 속에 있는 그림을 보니, 그림 1('파피루스 줄기'에 관한 글을 보완 설명함. → 설명적 시각 자료)에서 파피루스 줄기를 같은 길이로 길고 얇게 자른다는 것을, 그림 2(글의 내용을 시각화하여 보여줌 → 예시적 시각 자료)에서 그것들을 가로세로로 겹치고 서로 붙여 종이를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⑤ 그림 3('이집트의 기록 문화'와 관련이 있으나 글에서 다른 내용이 아님. → 보충적 시각 자료)은 이집트 상형 문자가 벽에 새겨진 모습을 담고 있었다.

**정답** ②

②-③ 설명적 시각 자료는 글 내용을 시각화하여 제시하는 목적에 더하여 글에서 다른 내용을 보완하는 목적으로 쓰인다.

⇒ <보기>에서 글은 “파피루스 줄기를 잘라, 줄기를 가로세로로 겹치고 서로 붙여 종이를 만들었다.”라는 내용만 있어서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하였다. 그림 1은 이를 시각화하여 제시하면서, 파피루스 줄기를 같은 길이로 길고 얇게 자른다는 내용을 보완해주었기에 설명적 시각 자료이다.

**오답**

① 비행기 그림은 글 내용을 시각적으로 보여 주는 예시적 시각 자료이다.

②-⑥ 이 외에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거나 글 내용과 관련 없이 여백을 메우는 목적으로 장식적 시각 자료가 쓰이기도 한다.

③ 그림 2는 글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을 보여 주는 보충적 시각 자료이다.

②-② 예시적 시각 자료는 글 내용을 시각화하여 보여 주는 데 목적이 있다.

④ 그림 3은 글 내용에 있는 설명 대상을 표현하여 글의 주제와의 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

②-④ 보충적 시각 자료는 글의 주제와 관련이 있지만 글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내용을 추가하여 보충하는 목적으로 쓰인다.

⑤ 그림 2와 3은 글에서 다른 내용을 보완하여 글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②-⑤ 이에 따라 보충적 시각 자료는 글 내용의 범위를 확장하는 특징이 있다.

→ 시정 명령·과징금 부과·형사 처벌 0

⑤ ‘추천·보증 광고 심사 지침’, ‘인터넷 광고 심사 지침’

- 경험적 사실 근거·전문적 판단 근거
- 경제적 이해관계 있는 경우 명시 필요

⑥ 이용 후기 광고

- 이유 없이 이용 후기 비공개 또는 삭제 시 부당한 광고
- 객관적으로 자신의 사용 경험의 바탕,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 ⇒ 명예훼손죄 X

[주제] 사업자의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와 부당한 광고에 대한 법적 규제

4. 세부 내용 추론 (83%)

**정답** ④ 경험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추천·보증은 심사 지침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에 부합해야 한다.

⑤-③ 경험적 사실을 근거로 추천·보증을 할 때는 실제 사용해 봐야 하고 추천·보증을 하는 내용이 경험한 사실에 부합해야 부당한 광고로 제재받지 않는다.

⇒ 경험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추천·보증은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이 아니라 경험한 사실에 부합해야 한다.

**오답**

① ③-③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하는 사업자는 형사 처벌은 받지 않지만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④-④ 이를 위반한 사업자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② ②-②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란 사업자가 상품·용역을 거래할 때 거래 상대방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 단계별 사업자에게 거래 가격을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그 가격대로 판매·제공하도록 그 밖의 구속 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이다.

③-② 유통 조직의 효율성도 저하시킨다.

③ ③-⑤ 경쟁 제한의 폐해보다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큰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가 허용되는데, 그 이유는 사업자가 입증해야 한다.

⑤ ②-③ 이때 거래 가격에는 재판매 가격, 최고 가격, 최저 가격, 기준 가격이 포함된다.

③-④ 다만,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출판된 저작물은 금지 대상이 아니다.

<2025학년도 9월 모의평가 4~7번> - 수능특강 독서 p.124

사회 -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및 부당한 광고 규제

①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부당한 광고 규제

→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② 공정거래법: 사업자의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금지

-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사업자 간 거래 가격 (재판매 가격, 최고 가격, 최저 가격, 기준 가격) 판매·제공 강제 또는 구속 조건

③ 영업의 자유·사업자 간 가격 경쟁 제한, 유통 조직의 효율성 저하

→ 형사 처벌 X, 시정 명령·과과금 부과 대상 0

but. 경쟁 제한 폐해 <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

⇒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허용 (사업자 입증 필요)

④ 표시광고법: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할 우려 있는 광고 금지

5. 세부 내용 파악 (58%)

**정답** ④

㉞-㉠ 위의 두 심사 지침에서 말하는 이용후기 광고란 사업자가 자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소비자의 상품 이용후기를 활용해 광고하는 것이다.

⇒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가 자사의 홈페이지에 직접 작성해서 게시한 이용후기를 광고로 활용하는 것은 ㉞에 포함되지 않는다.

**오답**

① ㉠은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시장 경쟁 제한의 폐해보다 작은 경우에 허용된다.

㉞-㉠ 경쟁 제한의 폐해보다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큰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가 허용되는데, 그 이유는 사업자가 입증해야 한다.

② ㉠을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목적은 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㉞-㉠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㉞-㉠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는 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자유, 즉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업자 간 가격 경쟁을 제한한다.

③ ㉞을 할 때 사업자는 영업의 자유를 보호받지만 표현의 자유는 보호받지 못한다.

㉞-㉠ 광고는 표현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로 보호받는다.

⑤ ㉠은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 ㉞은 소비자와 소비자 간에 직접 일어나는 행위이다.

㉞-㉠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란 사업자가 상품·용역을 거래할 때 거래 상대방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 단계별 사업자에게 거래 가격을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그 가격대로 판매·제공하도록 그 밖의 구속 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이다.

㉞-㉠ 위의 두 심사 지침에서 말하는 이용후기 광고란 사업자가 자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소비자의 상품 이용후기를 활용해 광고하는 것이다.

6. 구체적 사례 적용 (88%)

① A 상품 제조 사업자인 갑은 거래 상대방 사업자에게 특정 판매 가격을 지정해 거래했다.(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② 갑의 회사 홈페이지에 A 상품에 대한 이용후기가 다수 게시되었다. ③ 갑은 그중 A 상품의 품질 불량을 문제 삼은 이용후기 200개를 삭제하고(부당한 광고), 박○○ 교수팀이 A 상품을 추천·보증한 광고를 게시했다(전문적 판단을 근거로 추천·보증). ④ 광고 대형

사 직원 을은 A 상품의 효능이 뛰어나다는 후기를 갑의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명시 필요). ⑤ 소비자 병은 A 상품을 사용하여 발견한 하자를 찍은 사진과 품질이 불량하다는 글을 갑의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객관적 내용으로 자신의 사용 경험에 바탕을 두고 다른 이용자에게 도움을 주려는 등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 ⑥ 갑은 병을 명예훼손죄로 처벌해 달라며 수사 기관에 고소했다(명예훼손죄 성립 불가).

**정답** ②

㉞이 거래 상대방에게 판매 가격을 지정하며 이를 준수하도록 부과한 조건에 대해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했더라도 그 가격이 권장 소비자 가격이었던 갑은 제재를 받지 않겠군.

㉞-㉠ 권장 소비자 가격이라도 강제성이 있다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 해당한다.

㉞-㉠ 경쟁 제한의 폐해보다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큰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가 허용되는데, 그 이유는 사업자가 입증해야 한다.

⇒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였다면 권장 소비자 가격이라 할지라도 거래 상대방에게 그것을 지정하여 준수하도록 할 수 없다.

**오답**

① ㉞-㉠ 반면 사업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이용후기는 비공개하거나 삭제하기도 하는데,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이는 부당한 광고가 될 수 있다.

② ㉞-㉠ 하지만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거짓·과장 광고,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기만 광고를 금지한다.

④ ㉞-㉠ 추천·보증이 광고에 활용되면서 추천·보증을 한 사람이 사업자로부터 현금 등의 대가를 지급받는 등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면 해당 게시물에 이를 명시해야 한다.

⑤ ㉞-㉠ 이때 이용후기가 객관적 내용으로 자신의 사용 경험에 바탕을 두고 다른 이용자에게 도움을 주려는 등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게시자의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7. 단어 의미 파악 (98%)

**정답** ①

⇒ ㉞의 '붙여'는 '조건, 이유, 구실 따위를 딸리게 하다.'의 의미로, '그는 내 의견에 본인의 견해를 붙여 발언을 이어 갔다.'의 '붙여'와 문맥상 의미가 가깝다.

**오답**

② 어떤 감정이나 감각을 생기게 하다.  
이 해설지에 관한 저작권은 굿어 굿어에 있습니다.

- ③ 신체의 일부분을 어느 곳에 대다.
- ④ 맞닿아 떨어지지 않게 하다.
- ⑤ 불을 일으켜 타게 하다.

<2025학년도 9월 모의평가 8~11번> - 수능특강 독서 p.218

### 기술 - 블록체인 기술

- ① 블록체인 기술
  - 블록체인: 체인 형태로 연결된 블록의 집합
  - 노드: 블록체인을 저장하는 컴퓨터
  - 블록 간 내용 상충, 이중 포함 검증 → 모든 노드들이 블록-블록체인 연결 승인 결정
- ② 블록체인 기술의 성능: 데이터 저장 속도  
블록체인 기술: 공개형, 비공개형
  - 비공개형: 노드 수 제한, 합의 알고리즘 속도 빠름 → 성능 높음
- ③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 무결성
  - 무단 변경: 승인 과정 필요 → 데이터 변경 어려움
  - 일부 데이터 복원: 승인 과정 필요 X
- ④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 보안성, 탈중앙성, 확장성
  - 보안성 ∝ 승인 과정 시간, 노드 수
  - 탈중앙성 ∝ 노드 수
  - 확장성: 노드 수가 증가하더라도 성능 저하 크지 않음
 한계: 세 가지 특성 함께 높일 수 있는 방법 X ⇒ 대규모 채택 X

[주제]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과 한계

### 8. 세부 내용 파악 (72%)

**정답** ④ 합의 알고리즘은 작업증명의 한 예이다.

①-⑦ 승인 과정에는 합의 알고리즘이 사용되고, 합의 알고리즘의 예로 '작업증명'이 있다.

⇒ 합의 알고리즘이 작업증명보다 더 큰 범주이다.

**오답**

① ④-① 블록체인 기술에서 고려해야 할 세 가지 특성이 있다.

④-① 아직까지 블록체인 기술은 보안성, 탈중앙성, 확장성을 함께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대규모로 채택되지 못하고 있다.

② 블록체인 기술의 응용 분야를 소개하고 있지 않다.

③ 다른 기술과의 경쟁 양상은 설명하고 있지 않다.

⑤ ①-① 블록체인 기술은 데이터를 블록이라는 단위로 묶어 체인 형태로 연결한 것을 여러 대의 컴퓨터에 중복 저장하는 기술이다.

### 9. 중심 내용 파악 (61%)

**정답** ⑤

①-④ 노드들은 블록에 포함된 내용이 블록체인에 다른 블록에 있는 내용과 상충되지 않는지, 동일한 내용이 블록체인의 다른 블록에 이중으로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증한다.

⇒ 블록에 포함된 내용이 블록체인에 다른 블록에 있는 내용과 상충되지 않는지, 동일한 내용이 블록체인에 다른 블록에 이중으로 포함되어 있는지 검증하는 것은 블록에 데이터를 블록체인의 다른 데이터와 비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답**

① 승인 과정에 참여할 노드를 결정하기 위해 합의 알고리즘이 사용된다.

①-⑤ 검증이 끝난 블록을 블록체인에 연결할지 여부는 모든 노드들이 참여하는 승인 과정을 통해 정해진다.

①-⑦ 승인 과정에는 합의 알고리즘이 사용되고, 합의 알고리즘의 예로 '작업증명'이 있다.

② 일부 블록체인 데이터가 변경되면 전체 노드의 모든 블록은 승인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한다.

③-② 특정 노드에 저장되어 있는 일부 데이터가 변경되면 변경된 블록과 그 이후의 블록들은 블록체인과의 연결이 끊어진다.

③-③ 끊어진 모든 블록을 다시 연결하는 것은 승인 과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연결을 복구하는 것은 어렵다.

③ 블록과 블록체인의 연결을 유지하면서 블록체인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으면 보안성이 높다.

④-② 보안성은 데이터의 무단 변경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일한 내용의 데이터가 블록체인에 서로 다른 블록에 또는 단일 블록에 이중으로 포함되는 것이 어렵다는 성질이다.

④ 공개형 블록체인 기술은 같은 양의 데이터가 저장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을수록 성능이 낮아진다.

②-① 블록체인 기술의 성능은 블록체인에 데이터가 저장되는 속도로 정의되며, 단위 시간당 블록체인에 저장되는 데이터의 양으로 계산될 수 있다.

### 10. 생략된 내용 추론 (52%)

**정답** ②

①-① 블록체인 기술은 데이터를 블록이라는 단위로 묶어 체인 형태로 연결한 것을 여러 대의 컴퓨터에 중복 저장하는 기술이다.

⇒ 블록체인에 저장된 데이터가 일부 지워졌을 때 다른 노드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면 되기 때문에 복원이 용이하다.



**오답**

- ① 블록체인에 포함된 데이터는 변경이 쉽기 때문이다.
  - ③-① 데이터가 무단으로 변경되기 어렵다는 성질을 무결성이라 하는데 무결성은 블록체인 기술의 대표적인 장점이다.
- ③ 승인 과정에 참여하는 노드 수에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 ①-⑤ 검증이 끝난 블록을 블록체인에 연결할지 여부는 모든 노드들이 참여하는 승인 과정을 통해 정해진다.
- ④ 데이터가 블록체인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승인 과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 ③-⑤ 무단 변경과 달리, 일부 데이터가 지워져도 승인된 원래의 데이터로 복원할 때는 승인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
- ⑤ 동일한 데이터가 블록체인에 연결된 서로 다른 블록에 이중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 ①-④ 노드들은 블록에 포함된 내용이 블록체인의 다른 블록에 있는 내용과 상충되지 않는지, 동일한 내용이 블록체인의 다른 블록에 이중으로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증한다.

11. 구체적 사례 적용 (63%)

① 노드 수가 10개로 고정된(비공개형)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A 업체는 이전에 사용하던 작업증명 대신 속도가 더 빠른(보안성↓) 합의 알고리즘을 개발해, 유통 분야에서 요구되는 성능을 초과 달성했다.(확장성↑) ② 한편 B 업체는 최근 A 업체보다 데이터의 위조 불가능성을 향상시킨(무결성↑)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했다. ③ 이 기술은 노드 수에 제한이 없지만(공개형) 현재는 200개의 노드가 참여하고 있다. ④ 승인 과정에는 작업증명을 사용한다.

**정답** ③

- ①-⑤ 검증이 끝난 블록을 블록체인에 연결할지 여부는 모든 노드들이 참여하는 승인 과정을 통해 정해진다.
- ②-① 블록체인 기술의 성능은 블록체인에 데이터가 저장되는 속도로 정의되며, 단위 시간당 블록체인에 저장되는 데이터의 양으로 계산될 수 있다.
- ④-⑤ 노드 수가 감소하면 탈중앙성은 낮아진다.
  - ⇒ 노드 수가 적을수록 승인 과정에 걸리는 시간이 짧아지므로 성능이 높아진다. 또 노드 수가 감소하면 탈중앙성은 낮아진다.

**오답**

- ① A 업체의 블록체인 기술은 이전보다 확장성과 보안성이 모두 높아졌지만.

- ④-③ 승인 과정에 걸리는 시간이 줄거나 노드 수가 감소하면 보안성은 낮아진다.
- ④-⑥ 확장성은 블록체인 기술이 목표로 하는 응용 분야에 적용 가능할 만큼 성능이 높고, 노드 수가 증가해도 서비스 유지가 가능하다는 성질이다.
- ② B 업체의 블록체인 기술은 노드 수가 증가할수록 보안성과 확장성이 모두 높아져왔지만.
  - ④-③ 승인 과정에 걸리는 시간이 줄거나 노드 수가 감소하면 보안성은 낮아진다.
  - ④-⑦ 노드 수가 증가하면 성능이 저하되므로, 확장성이 높다는 것은 노드 수가 증가하더라도 성능 저하가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④ A 업체의 블록체인 기술은 B 업체와 달리 공개형이 아니라, B 업체보다 탈중앙성이 낮지만.
  - ②-③ 비공개형은 공개형과 달리 노드 수에 제한을 두고, 일반적으로 공개형에 비해 합의 알고리즘의 속도가 빠르다.
  - ④-④ 노드 수가 감소하면 탈중앙성은 낮아진다.
- ⑤ A 업체의 블록체인 기술은 B 업체와 승인 과정이 다르고, B 업체보다 무결성이 높지만.
  - ③-① 데이터가 무단으로 변경되기 어렵다는 성질을 무결성이라 하는데 무결성은 블록체인 기술의 대표적인 장점이다.

<2025학년도 9월 모의평가 12~17번> - 수능완성 p.240

(가) 예술 - 바쟁의 영화 이론

- ① 앙드레 바쟁, 영화=세상을 향해 열린 창
    - ⇒ 영화가 현실의 물리적 연속성과 미결정성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야 함
  - ② 이미지를 믿는 감독
    - 몽타주: 관객이 익숙한 대상을 낯설게 받아들여지게 함
    - ⇒ 현실의 연속성 파괴, 관객이 현실을 하나의 의미로만 해석할 후려
  - ③ 현실을 믿는 감독(바쟁의 지지)
    - 디프포커스, 롱 테이크
  - ④ 다큐멘터리처럼 강한 현실감, 열린 결말을 통해 의미를 확정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영화 선호
- [주제] 변형되지 않은 현실을 보여주는 영화를 지지한 바쟁의 영화 이론

(나) 예술 -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

- ①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 영화는 환영이다.
  - 동일시 현상: 관객이 등장인물에 자신을 일치

← 영화 장치의 영향

- 영화 속 인물과 사물의 부재 → 관객이 허구적 세계의 중심에 자신을 위치시킴 → 영화와 현실 사이 간극 해소

② 관객의 시점 = 카메라의 시점

- 관객: 자신이 영화를 보는 시선의 주체 but 카메라에 의해 이미 규정된 시선(제작과정에서의 선택과 배제를 관객은 알 수 없음)

③ 영화관의 환경: 관객의 영화 환영 인식을 어렵게 만들.

⇒ 관객이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영화를 볼 수 있도록, 영화가 환영임을 영화 스스로 폭로하는 설정이 담긴 대안적 영화 필요

[주제] 영화의 현실이 환영이라고 본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

12. 세부 내용 파악 (56%)

정답 ①

(가) ①-① 리얼리즘 영화 이론가 앙드레 바쟁에 따르면 영화는 '세상을 향해 열린 창'이다.

(나) ③-⑤ 이때 영화는 꿈에 빗대진다.

⇒ (가)에서는 영화를 '세상을 향해 열린 창'으로, (나)에서는 '꿈'에 비유된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② (가) ③-① 바쟁은 '현실을 믿는 감독'을 지지했다. ⇒ (가) O / (나) X

③ (가)와 (나) 모두 '관객'이 영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만, '관객의 심리'가 영화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 (가) X / (나) X

④ (가)와 (나) 모두 영화 이론이 시기별로 어떻게 변하였는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 (가) X / (나) X

⑤ (나) ③-① 영화관의 환경은 관객이 영화가 환영임을 인식하기 어렵게 만든다. ⇒ (가) X / (나) O

13. 구체적 사례 적용 (78%)

정답 ③

③ 디프 포커스를 활용하여 주인공과 주인공 뒤로 펼쳐진 배경을 하나의 솟으로 촬영한 장면에서, 관객은 배경이 흐릿하게 인물은 선명하게 보이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가) ③-④ 디프 포커스는 근경에서 원경까지 솟 전체를 선명하게 초점을 맞춰 촬영하는 기법으로, 원근감이 느껴지도록 공간감을 표현할 수 있다.

⇒ 디프 포커스를 활용하여 주인공과 주인공 뒤의 배경

을 하나의 솟으로 촬영한 장면에서는 솟 전체가 선명하게 보인다.

오답

① (가) ②-④ 몽타주는 추상적이거나 상징적인 이미지를 통해 관객이 익숙한 대상을 낯설게 받아들여 준다.

② (가) ②-⑤ 또한 짧은 솟들을 불규칙적으로 편집해서 영화가 재현한 공간이 불연속적으로 연결된 듯한 느낌을 만들어 낸다.

④ (가) ③-⑤ 롱 테이크는 하나의 솟이 1~2분 이상 끊김 없이 길게 진행되도록 촬영하는 기법이다.

(가) ③-⑥ 영화 속 사건이 지속되는 시간과 관객의 영화 체험 시간이 일치하여 현실을 마주하는 듯한 효과를 낸다.

⑤ (가) ③-⑦ 바쟁에 따르면, 디프 포커스와 롱 테이크를 혼용하여 연출한 장면은 관객이 그 장면에 담긴 인물이나 사물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응시하면서 화면 속 공간 전체와 사건의 전개를 지켜볼 수 있게 해 준다.

14. 글에 드러난 관점·내용 비판 (65%)

① 관객은 특별한 예술 교육을 받지 않아도 작품을 해석할 수 있다. ② 또한 감독의 의도대로 작품을 해석하는 존재가 아니다. ③ 따라서 감독은 영화를 통해 관객을 계몽하려 할 필요가 없다. ④ 관객은 작품과 상호작용하며 의미를 생산하는 능동적 존재이다. ⑤ 감독과 관객은 수평적인 위치에 있다.

정답 ⑤

<보기>-④ 관객은 작품과 상호 작용하며 의미를 생산하는 능동적 존재이다.

(가) ②-⑥ 바쟁은 몽타주가 현실의 연속성을 깨뜨릴 뿐만 아니라 감독의 의도에 따라 관객이 현실을 하나의 의미로만 해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연출 방식이라고 생각했다.

(가) ③-⑦ 바쟁에 따르면, 디프 포커스와 롱 테이크를 혼용하여 연출한 장면은 관객이 그 장면에 담긴 인물이나 사물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응시하면서 화면 속 공간 전체와 사건의 전개를 지켜볼 수 있게 해 준다.

⇒ <보기>에서는 관객을 감독의 의도대로 작품을 해석하는 존재가 아니라 작품과 상호 작용하며 의미를 생산하는 능동적 존재로 보고 있다. 그러나 (가)의 바쟁은 감독의 연출 방식에 따라 영화 작품에 대한 관객의 이해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감독이 관객보다 우위에 있다고 간주하는 바쟁에 대해

이 해설지에 관한 저작권은 굿어 굿어 Y에 있습니다.

<보기>의 입장에서 비판할 수 있다.

**오답**

① 바쟁은 열린 결말의 영화를 관객이 이해하도록 돕는 예술 교육의 필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보기>-① 관객은 특별한 예술 교육을 받지 않아도 작품을 해석할 수 있다

② 바쟁은 정교하게 구조화된 서사의 영화를 통해 관객을 계몽하는 것을 영화의 목적이라고 오인하고 있다.

(가) ④-② 또한 정교하게 구조화된 서사를 통해 의미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영화보다는 열린 결말을 통해 의미를 확정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영화를 선호했다.

③ 바쟁이 감독의 연출 역량을 기준으로 감독의 유형을 나누는 것은 영화와 관객의 상호 작용을 무시한 구분에 불과하다.

(가) ②-① 바쟁은 영화감독을 ‘이미지를 믿는 감독’과 ‘현실을 믿는 감독’으로 분류했다.

(가) ②-② 영화의 형식을 중시한 ‘이미지를 믿는 감독’은 다양한 영화적 기법으로 현실을 변형하여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는 데 주력한다.

(가) ③-① 바쟁은 ‘현실을 믿는 감독’을 지지했다.

(가) ③-② 이들은 ‘이미지를 믿는 감독’과 달리 영화의 내용, 즉 현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에 변형되지 않은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고자 한다.

④ 바쟁이 변형된 현실을 통해 생성한 의미를 관객에게 전달하는 것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관객의 능동적인 작품 해석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가) ②-② 영화의 형식을 중시한 ‘이미지를 믿는 감독’은 다양한 영화적 기법으로 현실을 변형하여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는 데 주력한다.

**15. 내용의 인과관계 파악 (58%)**

**정답 ①**

(나) ①-② 영화와 관객의 심리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은 영화와 관객 사이에 발생하는 동일시 현상에 주목한다.

(나) ①-③ 이런 동일시 현상은 영화 장치로 인해 발생한다.

⇒ 동일시 현상은 영화 장치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에 관객은 영화 장치에 영향을 받아 영화에서 상상적인 것이며 환영인 현실감을 느낀다.

**오답**

② 현실의 의미는 미리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나) ①-③ 관객은 상상적 작업을 통해, 영화가 보여 주는 세계의 중심에 자신을 위치시킴으로써, 허구적 세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없앤

다.

③ 영화가 현실을 불연속적으로 파편화하여 드러내기 때문이다.

(나) ①-③ 이런 동일시는 극영화뿐 아니라 다큐멘터리 영화에서도 발생한다.

④ 관객은 영화의 은폐된 어법을 그대로 받아들일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나) ③-④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은 영화가 은폐하고 있는 특정한 어법을 관객이 의심하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다.

⇒ ⑦의 이유가 아니라 ①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이다.

⑤ 관객은 영화의 제작 과정에서 배제된 것들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②-④ 또한 영화는 촬영과 편집 과정에서 특정한 의도에 따라 선택과 배제가 이루어지지만, 관객은 제작 과정에서 무엇이 배제되었는지 알 수 없다.

**16. 다른 견해와의 비교 (59%)**

**정답 ⑤**

(나) ①-③ 관객은 상상적 작업을 통해, 영화가 보여주는 세계의 중심에 자신을 위치시킴으로써, 허구적 세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없앤다.

⇒ B의 관점에서 볼 때 영화 ㉠과 ㉡에서 모두 동일시가 발생한다. 이는 곧 상상적 작업을 통해 허구적 세계의 중심에 자신을 위치시켰기 때문에 느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

① A의 관점에서 보면, 학생이 ㉠에서 궁금함을 떠올린 것은 ‘이미지를 믿는 감독’이 열린 결말을 통해 현실을 있는 그대로 ㉡에 담았기 때문이다.

(가) ②-② 영화의 형식을 중시한 ‘이미지를 믿는 감독’은 다양한 영화적 기법으로 현실을 변형하여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는 데 주력한다.

② A의 관점에서 보면, 학생이 ㉡에서 사건의 전개를 예측하지 못한 것은 ㉡에는 의미가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은 미결정 상태의 현실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가) ④-② 또한 정교하게 구조화된 서사를 통해 의미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영화보다는 열린 결말을 통해 의미를 확정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영화를 선호했다.

(가) ④-③ 이러한 영화가 미결정 상태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는 열린 결말이 아니다.

③ A의 관점에서 보면, 학생이 ㉠과 ㉡에서 착각하는 듯한 인상을 받은 것은 ㉠과 ㉡가 강한 현실감을 띠어 해설지에 관한 저작권은 굿어 굿어에 있습니다.

들어 내는 연출 방식으로 촬영되었기 때문이다.

(가) ㉒-㉓ 영화의 형식을 중시한 ‘이미지를 믿는 감독’은 다양한 영화적 기법으로 현실을 변형하여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는 데 주력한다.

(가) ㉔-㉕ 바생은 현실의 공간에서 자연광을 이용해 촬영하거나, 연기 경험이 없는 일반인을 배우로 쓰는 등 다큐멘터리처럼 강한 현실감을 만들어 내는 연출 방식에 찬사를 보냈다.

⇒ ㉖와 ㉗가 현실감을 만들어 내는 연출 방식은 서로 다르다. ㉖는 강한 현실감을 만들어 내는 연출 방식으로, ㉗는 컴퓨터 그래픽 화면으로 현실감을 만들어 낸다.

④ B의 관점에서 보면, 학생이 ㉘에서 의아함을 떠올린 것은 ㉙가 관객으로 하여금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며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대안적인 영화이기 때문이다.

(나) ㉚-㉛ 이는 관객이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영화를 볼 수 있도록, 영화가 환영임을 영화 스스로 폭로하는 설정이 담겨 있는 대안적인 영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 학생이 ㉘에서 영화를 보는 동안에는 의아함을 떠올리지 못했다. 즉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며 영화를 보지 않았다.

17. 단어 의미 파악 (89%)

정답 ①

⇒ ‘개선(改善)되다’는 ‘잘못된 것이나 부족한 것, 나쁜 것 따위가 고쳐져 더 좋게 되다.’라는 뜻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있는 적이 없다.’라는 뜻의 ㉠ ‘새로운’과 바꾸어 쓰기 적절하지 않다.

오답

- ② 파괴(破壞)하다: 조직, 질서, 관계 따위를 와해하거나 무너뜨리다.
- ③ 대면(對面)하다: 서로 얼굴을 마주 보고 대하다.
- ④ 기용(起用)하다: 인재를 높은 자리에 올려 쓰다.
- ⑤ 해소(解消)하다: 어려운 일이나 문제가 되는 상태를 해결하여 없애 버리다.

<2025학년도 9월 모의평가 18~21번>

고전소설 - 수산, 「광한루기」

수산(水山)이 「춘향전」을 바탕으로 지은 한문 소설로, 총 8회로 이루어져 있다. 이 작품은 춘향전의 이야기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시대적 배경과 인물 설정에는 차별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독자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주요 인물로는 「춘향전」의 이도령이 도린(桃隣) 혹은 화경(花卿)으로, 방자는 김한(金

漢)으로 되어 있으나, 월매와 춘향은 그대로이고 향단이 등장하지 않는다.

등장인물: 이도린, 김한, 춘향

중심 사건 1: 이도린이 그네 뛰는 춘향을 보고 김한을 통해 불러오도록 함

중심 사건 2: 김한이 춘향에게 이도린을 만나도록 설득함

[주제] 춘향과 도린의 신분을 초월한 사랑

18. 작품 내용 이해 (81%)

정답 ①

[지문] 춘향은 몸을 돌려 꽃그늘 속으로 들어가 숨고서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도린이 꽃무늬가 있는 작은 종이를 손에 쥐고 홀로 광한루 동쪽 난간에 기대어 있었는데, 그 모습이 티 없이 맑아 춘향은 은연중에 찬탄하는 말을 내뱉었다.

⇒ 춘향은 꽃그늘 속에서 이도린을 바라보며 은연중에 찬탄하는 말을 내뱉을 만큼 호감을 느꼈다. 하지만 이는 춘향이 꽃그늘에 숨어서 한 행위이므로 이도린은 이 사실을 알 수 없었다.

오답

② 춘향은 그네를 타기 위해 나들이에 나섰지만 기대했던 바를 달성하지 못했다.

[지문] 원래 춘향은 풍경을 즐기려는 옆집 여자 아이를 따라 나온 것이었다.

⇒ 춘향이 그네를 타기 위해 나들이에 나섰다는 사실을 알 수 없다.

③ 이도린은 춘향을 부르면 이도린 자신을 만나러 올 것이라는 김한의 말을 믿었다.

[지문] “부른다 해도 저 아이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 김한은 이도린이 춘향을 부르면 이도린 자신을 만나러 올 것이라 말하지 않았다.

④ 이도린은 월매가 춘향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를 모르는 척 했다.

[지문] “저렇게 젊고 아리따운 여인을 어떻게 반쯤은 주글쭊글해진 노파에다 비교할 수 있느냐?”

⇒ 이도린은 월매가 춘향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모른 척한 것이 아니라, 아예 알지 못했다.

⑤ 옆집 여자 아이는 이도린을 만나기 위해 춘향과 함께 왔지만 풍경을 즐기는 것에 만족했다.

[지문] 원래 춘향은 풍경을 즐기려는 옆집 여자 아이를 따라 나온 것이었다.

⇒ 옆집 여자 아이는 풍경을 즐기려고 춘향과 함께 왔다.



19. 배경 기능 파악 (93%)

**정답** ③

[지문] 춘향은 몸을 돌려 꽃그늘 속으로 들어가 숨고서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도린이 꽃무늬가 있는 작은 종이를 손에 쥐고 홀로 광한루 동쪽 난간에 기대어 있었는데, 그 모습이 티 없이 맑아 춘향은 은연중에 찬탄하는 말을 내뱉었다.

⇒ 꽃그늘은 춘향이 몸을 감추고 이도린을 바라보는 장소이다.

**오답**

① 춘향이 그네를 타기 위해 기다리는 장소

[지문] 봄바람에 옷자락이 흐트러져 버드나무 가지를 짝 잡은 채 그네를 멈추고 옷매무새를 바로잡으려 했다. 그때 갑자기 광한루 위에서 사람의 말소리가 들리자 춘향은 몸을 돌려 꽃그늘 속으로 들어가 숨고서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 꽃그늘은 춘향이 타던 그네를 멈추고 옷매무새를 바로잡으려 하다가 광한루 위에서 사람의 말소리가 들리자 몸을 숨기려고 들어간 곳이다.

② 춘향이 김환을 기다리며 머물고 있는 장소

[지문] 춘향이 다시 몸을 돌려 숨었기 때문에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김환이 이리저리 찾아보다가 꽃그늘에까지 와서 춘향을 발견했다.

⇒ 꽃그늘은 춘향이 몸을 숨긴 곳이며, 그런 그녀를 김환이 이리저리 찾다가 발견한 것이다.

④ 김환이 이도린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장소

[지문] 이도린이 꽃무늬가 있는 작은 종이를 손에 쥐고 홀로 광한루 동쪽 난간에 기대어 있었는데

⇒ 이도린은 꽃그늘이 아니라 광한루에서 춘향을 홀로 기다리고 있었다.

⑤ 이도린이 춘향과 만나기 위해 파리 약속한 장소

⇒ 광한루에 놀러 간 이도린은 춘향을 우연히 보았다.

20. 인물 성격·유형 이해 (81%)

**정답** ⑤

[지문] “속담에도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라고 했듯이 도련님께서 춘향이 발한 것이 우연히 오늘이며, 남자가 그네 뛰며 논 것도 마침 이때이니, 이는 참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된 것이요.”

⇒ 김환이 춘향과 이도린과의 만남은 거듭된 우연으로 이루어진 인연임을 알려주며, 두 사람을 만나게 하는 매개자 역할을 하고 있다.

**오답**

① 이도린에게 눈앞에 보이는 것이 금과 옥이 아니라고 알려주어, 이도린의 무지를 일깨우는 비판자 역할을 한다.

[지문] 그네 뛰는 모습을 이도린이 보고 자기도 모르게 눈앞이 어질어질하여 김환에게 말했다. “너는 저런 것을 본 적이 있느냐? 저것이 금이나, 옥이나? 아니면 귀신이나? 그것도 아니면 선녀냐? 너는 저것을 아느냐?”

⇒ 이도린이 ‘금이나, 옥이나?’라고 한 것은 춘향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감탄해서 한 말이다.

② 이도린에게 춘향이 선녀 같은 아가씨라고 말하여, 이도린이 춘향의 고귀한 신분을 알게 하는 조력자 역할을 한다.

[지문] “어떻게 귀신 같고 선녀 같은 아가씨가 요즘 세상에 나타났겠습니까?”

⇒ 김환은 춘향을 두고 이도린에게 선녀 같은 아가씨라고 말하지 않았다. 또한 춘향은 기생 월매의 딸이므로 춘향의 고귀한 신분을 알게 했다고 할 수 없다.

③ 이도린에게 풍류를 즐길 만한 상대가 춘향이라고 야기하여, 이도린이 춘향을 부르게 하는 중개자 역할을 한다.

[지문] “풍류를 즐길 만한 인연이 정말이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가서 불러 오거라.”

⇒ 춘향을 풍류를 즐길 만한 인연이라고 말한 사람은 이도린이다.

④ 춘향에게 춘향 자신이 지혜로운 사람임을 일깨워 주어, 춘향이 이도린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자 역할을 한다.

[지문] “춘향 남자, 그대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면서 이다지도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오? 속담에도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라고 했듯이 도련님께서 춘향이 발한 것이 우연히 오늘이며, 남자가 그네 뛰며 논 것도 마침 이때이니, 이는 참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된 것이요.”

⇒ 김환은 춘향이 이도린과의 만남을 거절하자 춘향이 이도린과 만나도록 설득한다. 따라서 방해자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없다.

21. <보기>에 따른 작품 감상 (85%)

① 「광한루기」는 ‘수산(水山)’이라는 호를 쓴 사람이 「춘향전」을 바탕으로 지은 한문 소설로, 총 8회로 이루어져 있다. ② 각 회의 앞부분에는 내용을 소개하는 시구와 해당 회에 대한 견해가 제시되어 있고, 본문 속에는 인물이나 사건 등에 대한 짤막한 평이나 감상

이 작은 글씨로 제시되어 있다. ㉓ 「광한루기」의 독자는 이와 같은 다양한 비평적 견해를 이야기와 함께 읽으면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정답** ⑤ [A]와 ㉑을 통해 독자에게 ~~작품의 감상법을 다양하게 설명하여, 「광한루기」를 8회로 구성된 이유를 부각하고~~ ~~있~~군.

⇒ [A]에서는 「광한루기」가 8회로 구성된 한 편의 작품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다만 ㉑에서는 인물의 대화에 대한 서술자의 주관적인 의견만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

- ① [지문] 오작교에선 선랑(仙郎)이 봄바람에 취하고  
버드나무 언덕에선佳人(佳人)이 그네를 뛰네
- ② [지문] 광한루 하나가 공중에 솟구쳐 있었기에 이도  
린이 놀러갈 수 밖에 없었고, 춘향이 이도린  
을 만날 수밖에 없었으며, 8회로 구성된 한  
편의 작품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다.
- ③ [지문] 광한루 하나가 공중에 솟구쳐 있었기에 이도  
린이 놀러갈 수 밖에 없었고, 춘향이 이도린  
을 만날 수밖에 없었으며, 8회로 구성된 한  
편의 작품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다.
- ④ [지문] (어찌 그러지 않을 수 있겠는가?)  
⇒ 설의적 방식을 통해 서술자가 이도린의 말에 동  
조하며 그러한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이 당연하다  
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2025학년도 9월 모의평가 22~27번> - 수능특강 문학 p.101

(가) 현대시 - 백석, 「북방에서 - 정현웅에게」

아득한 옛날에 나는 떠났다  
부여를 숙신을 발해를 여진을 요를 금을  
홍안령을 음산을 아무우르를 송가리를  
범과 사슴과 너구리를 배반하고  
송어와 메기와 개구리를 속이고 나는 떠났다  
▶ 북방을 떠난 '나'

나는 그때  
자작나무와 이깔나무의 슬퍼하던 것을 기억한다  
갈대와 장풍의 불드던 말도 잊지 않았다  
오로촌이 멧돌을 잡아 나를 잔치해 보내던 것도  
솔론이 십릿길을 따라 나와 울던 것도 잊지 않았다  
▶ 떠나는 '나'를 아쉬워하는 북방의 민족들

나는 그때  
아무 이기지 못할 슬픔도 시름도 없이  
다만 게을리 먼 앞대로 떠나 나왔다  
그리하여 파사한 햇귀에서 하이얀 옷을 입고 매끄  
러운 밥을 먹고 단 샘을 마시고 낮잠을 잤다  
밤에는 먼 개소리에 놀라나고

아침에는 지나가는 사람마다에게 절을 하면서도  
나는 나의 부끄러움을 알지 못했다

▶ 새로운 터전에서의 삶에 순응하며 사는 '나'  
그동안 돌비는 깨어지고 많은 은금보화는 땅에 묻  
히고 가마귀도 긴 족보를 이루었는데  
이리하여 또 한 아득한 새 옛날이 비롯하는 때  
이제는 참으로 이기지 못할 슬픔과 시름에 쫓겨  
나는 나의 옛 하늘로 땅으로 - 나의 태반으로 돌  
아왔으나

▶ 시련을 피해 북방으로 돌아온 '나'  
이미 해는 늙고 달은 파리하고 바람은 미치고 보래  
구름만 혼자 닳 없이 떠도는데

▶ 과거의 영화가 사라진 북방의 모습  
아, 나의 조상은 형제는 일가친척은 정다운 이웃은  
그리운 것은 사랑하는 것은 우리르는 것은 나의 자  
랑은 나의 힘은 없다 바람과 물과 세월과 같이 지나  
가고 없다

▶ 자랑과 힘이 허무하게 사라진 '나'의 모습  
[주제] 민족의 역사에 대한 회상과 현실의 부끄러움

(나) 현대시 - 문태준, 「살얼음 아래 같은 데 2 -  
생가(生家)」

겨울 아침(시간적 배경) 언 길을 걸어  
물가에 이르렀다  
나와 물고기 사이  
창(=살얼음)이 하나 생겼다  
물고기네 지붕을 튼 살얼음의 창  
투명한 창 아래  
물고기네 방이 한눈에 훤히  
나의 생가(화자가 태어난 곳) 같았다  
창으로 나를 보고  
생가의 식구들이(물고기와 생가의 식구들을 연결)  
나를 못 알아보고  
사방 쪽방으로 흩어졌다  
젓을 갖 떤 어린것들은(유년 시절 생가에서 지낸 아이들)  
찬 마루서 그냥저냥 그네끼리 놀고  
어미들은  
물속 쌓인 돌과 돌 그 틈새로  
그걸 깊은 데라고  
그걸 가장 깊은 속이라고 때로 들어가  
나를 못 알아보고  
무슨 급한 궁리를 하느라  
그 비좁은 구석방에 빼곡히 서서  
마음아, 너도 아직 이 생가에 살고 있는가  
시린 물속 시린 물고기의 눈을 달고

[주제] 물고기를 보며 떠올린 유년 시절의 추억과 서  
글픔

(다) 수필 - 유본예, 「이문원노종기(摛文院老縱記)」

유본예는 바쁜 근무 중에 종종 이문원 동쪽에 있는 늙은 나무 곁을 산책했다. 그런데 그가 나무에서 주목한 것은 큰 가지들을 지탱하는 기둥으로, 그는 기둥을 보며 나무가 오랫동안 무성하게 자랄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깨달음을 얻는다. 이를 바탕으로 홀로 생존할 수 있는 존재도 있지만, 서로 도와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도 있음을 전한다.

[주제] 서로 의지하고 사는 삶

22. 작품 간 공통점·차이점 파악 (85%)

정답 ③

(가) 아, 나의 조상은 형제는 일가친척은 정다운 이웃은 그리운 것은 사랑하는 것은 우러르는 것은 나의 자랑은 나의 힘은 없다 바람과 물과 세월과 같이 지나가고 없다

⇒ 북방에서 지니기를 기대했던 것들을 더 이상 지닐 수 없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여 화자의 상실감을 드러낸다.

(나) 마음아, 너도 아직 이 생가에 살고 있는가 / 시린 물속 시린 물고기의 눈을 달고

⇒ 비유를 통해 유년 시절의 생가에 느끼는 서글픔을 나타낸다.

(다) 가축이 인간에게 의지하여 살아가듯이 늙은 나무도 인간에게 의지하여 살아간다.

⇒ 가축과 인간과의 관계에 빗대어 늙은 나무도 인간의 도움으로 살아간다는 글쓴이의 인식을 드러낸다.

오답

① (가)에서는 부정적 현실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태도가 나타나 있지만, (나)와 (다)에서는 찾을 수 없다.

⇒ (가) O / (나) X / (다) X

② (가)에서는 북방에서 떠날 때, 북방으로 돌아올 때처럼 역사적 상황을 묘사하여 비극적 현실을 나타내고 있으나, (나)와 (다)에서는 찾을 수 없다.

⇒ (가) O / (나) X / (다) X

④ 세 작품 모두 영탄적 어조가 드러나지만 이를 통해 경외감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 (가) X / (나) X / (다) X

⑤ (가)는 향토적 소재를 사용하였으나 이는 화자의 그리움을 드러내기 위해 활용한 것이다. (나)의 화자는 과거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으나 향토적 소재를 사용하지 않았다. (다)의 글쓴이는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 (가) X / (나) X / (다) X

23. 배경 및 소재의 기능 파악 (87%)

정답 ①

(가) ‘태반’은 화자에게 뿌리와 같은 공간으로 ‘북방’을 의미한다. 화자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북방에 돌아왔지만, 예전과 달라진 모습을 보며 허무감과 상실감을 느낀다.

(나) ‘생가’는 화자가 유년 시절 보냈던 곳으로, 화자는 ‘물고기네’가 사는 공간을 보며 자신의 생가를 떠올린다. 이때 ‘시린 물속 시린 물고기의 눈을 달고’라고 하며 화자의 서글픔을 나타내고 있다.

오답

② (가)의 화자가 ‘소외감’을 느낀 부분을 확인할 수 없다. (나)의 화자가 어린 시절 수치심을 느꼈는지 확인할 수 없다.

③ (가)의 ‘태반’은 화자가 새로운 삶을 위해 선택한 공간으로, 이별을 수용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없다. (나)의 ‘생가’는 추억 속의 공간으로, 만남을 기약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없다.

④ (가)의 ‘태반’은 과거와 달라진 모습으로 인해 화자에게 깊은 상실감을 주는 공간이다. (나)의 화자에게 ‘생가’는 그림고 서러운 곳으로, 절망이 드러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없다.

⑤ (가)의 화자에게 ‘태반’은 새로운 삶을 지향하기 위해 선택한 공간이고, (나)의 화자에게 ‘생가’는 자신이 유년 시절에 지낸 공간으로, 둘 다 생명의 섭리와 관련이 없다.

24. 시어·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74%)

정답 ④ ㉠의 시구가 ㉡에서 반복, 변주되는 것을 통해, ~~상반된 상황이 시간의 추이에 따라 일치되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 아무 이기지 못할 슬픔도 시름도 없이

㉡ 이제는 참으로 이기지 못할 슬픔과 시름에 쫓겨

⇒ ㉠의 시구가 ㉡에서 반복, 변주되고 있으나, 상반된 상황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치되는 과정은 드러나지 않는다. 오히려 ㉠과 ㉡ 모두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공통적으로 드러난다.

오답

① ㉠ 부여를 숙신을 발해를 여진을 요를 금을 흥안령을 음산을 아무우르를 승가리를

⇒ 여러 민족과 나라, 지명을 열거하여 화자가 떠나온 공간을 북방으로 포괄되는 동질적 공간으로 표현하고 있다.

② ㉠ 자작나무와 이깔나무의 슬퍼하던 것을 기억한다 갈대와 장풍의 불드던 말도 잊지 않았다

이 해설지에 관한 저작권은 굿어 굿어 Y에 있습니다.

- ⇒ 나무와 풀을 의인화하여 북방을 떠나기 아쉬워하는 화자의 마음을 투영해 표현하고 있다.
- ③ ㉔ 오로촌이 멧돌을 잡아 나를 잔치해 보내던 것도 쓸론이 십릿길을 따라 나와 울던 것도 잊지 않았다
  - ⇒ '~이 ~을 ~ 것도'와 같은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 화자가 북방에서의 기억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⑤ ㉕ 아, 나의 조상은 형제는 일가친척은 정다운 이웃은 그리운 것은 사랑하는 것은 우러르는 것은 나의 자량은 나의 힘은 없다
  - ⇒ 북방에서 화자가 긍정적으로 인식하던 것들의 부재를 알 수 있다.

25. <보기>에 따른 작품 감상 (76%)

❶ 이 시에서 성년이 된 화자는 얼음 아래의 물고기를 보면서 유년 시절 자신의 생각을 회상한다. ❷ 화자는 물고기의 움직임에 지켜보면서 '물고기네'의 여기저기를 본다. ❸ 그리고 '물고기네'의 모습에 화자의 생각에 대한 기억이 겹쳐진다. ❹ 화자는 자신을 물고기에 투영하면서, 성년이 된 지금도 여전히 생각에서의 '시린'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정답** ④ 화자는 '비좁은 구석방'에서 '급한 궁리를 하'는 물고기의 모습에 유년 시절 생각에서 외따로 지내야 했던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군.

⇒ 화자는 어미 물고기가 좁은 돌 틈새로 어린 물고기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돌 틈 사이에 '빠곡히 서' 있는 '물고기네'를 보며 그들이 '비좁은 구석방'에서 '급한 궁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 모습은 화자를 보고 놀라 좁은 틈에 숨은 물고기들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자, 화자가 유년 시절 생각의 좁은 방에서 어머니와 형제들과 더불어 지냈던 모습을 투영한 것이다.

**오답**

- ① 화자는 살얼음 아래에 있는 물고기들을 보며 그들이 사는 곳을 '물고기네 방'이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나의 생각'과 같다고 여기고 있다. 이를 통해 물고기의 공간과 자신의 생각을 겹쳐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② 화자는 '물고기네'를 유년 시절의 자기 가족과 겹쳐 보고 있다. 물고기들이 '창으로 나를 보'고 놀라 '사방 쪽방으로 흩어'진다고 표현한 것은 '생가의 식구들'이 어른이 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③ 화자는 물고기들을 보며 '젓을 갓 땀 어린 것들'이 '그네끼리 놓고' 있다고 표현했다. 이를 통해 유년 시

절 생각에 서 어린 형제들과 함께 놀았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린다고 할 수 있다..

- ⑤ 화자는 '물고기네'의 모습을 보며 '마음아, 너도 아직' 이 생각에 '살고 있는가'라고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화자가 아직도 생각에 대한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6. 배경·소재 기능 파악 (71%)

**정답** ⑤

- ㉔ 살얼음의 창
  - ⇒ 투명한 살얼음을 의미하며, 화자는 길을 가다 물가에서 이 창을 보게 된다. 그리고 물속에 있는 물고기의 모습을 보며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린다.
- ㉕ 기둥
  - ⇒ 늙은 나무의 큰 가지가 부러지지 않도록 지지해 놓은 것으로, 글쓴이는 무성한 나무에 여러 기둥이 받쳐져 있음을 알게 된다. 그리고 이 나무가 오랫동안 무성하게 자랄 수 있었던 이유를 생각한다.

**오답**

- ① ㉔는 화자의 불안을 심화하는, ㉕는 글쓴어의 의지를 북돋아 주는 역할을 한다.
  - ⇒ ㉔는 물속 존재에 대한 화자의 궁금증을, ㉕는 나무에 대한 글쓴이의 궁금증을 자극한다.
- ② ㉔는 화자의 이상향을 형상화하는, ㉕는 글쓴어의 태도를 전환하는 역할을 한다.
  - ⇒ ㉔는 화자가 직접 보고 있는 살얼음일 뿐이다. ㉕는 글쓴이에게 깨달음을 주는 역할만을 할 뿐이다.
- ③ ㉔는 ㉕와 달리, 화자에게 책임감을 떠올리게 하는 계기가 된다.
  - ⇒ ㉔와 ㉕ 모두 화자나 글쓴이가 무엇인가에 대한 책임감을 떠올리는 계기가 되지 않는다.
- ④ ㉕는 ㉔와 달리, 글쓴이가 처한 상황을 극복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 ⇒ ㉔와 ㉕ 모두 화자나 글쓴이가 처한 상황을 극복하게 하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

27. <보기>에 따른 작품 감상 (74%)

**정답** ③

'풀과 나무'가 '몸을 보전하는 계책'이 있는 것은, '조물주'가 서로 다른 생명체가 이익을 주고받도록 해 준 경우에 해당합니다.

[지문] “이 나무는 정말로 특이하군! 대체로 풀과 나무가 살아가려면 제각기 몸을 보전하는 계책이 있기 마련일세. 풀명자나 배, 굴이나 유자, 사과나 석류 같은 나무들은 열매가 커도 가지가 그 무게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대네. 하지만 질경이나 냉이, 강아지풀 같은 풀들은 살아가려면 땅바닥

이 해설지에 관한 저작권은 굿어 굿어Y에 있습니다.



에 붙어 있어야 하네. 그래야 말발굽이 짓밟거나 수레가 밟고 지나가도 더 손상을 입지 않지. 지금 저 늙은 나무는 줄기의 길이가 몸통보다 갑절로 뻗어 사방에 드리워도 잘라 낼 줄 모르네. 만약 받쳐 주는 기둥이 없으면 부러지고야 말 걸세. 조물주가 이 나무에게는 사람의 손을 빌려 온전하도록 한 것인가?”

⇒ ‘풀과 나무’가 지닌 ‘몸을 보존하는 계획’은 누구의 도움 없이 생존을 위해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경우에 해당한다.

**오답**

- ① 글쓴이는 ‘이문원 동쪽 늙은 나무’가 ‘백여 년’을 살 수 있는 이유를 분석했다. 그 결과로 이 나무가 ‘사람의 손을 빌려 온전’할 수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 ② 글쓴이는 ‘이문원 동쪽 늙은 나무’ 곁을 산책할 때 ‘널찍이 드리운 서늘한 그늘’로 인해 ‘흠뻑 벗어나는 기분’을 지녔다고 했다. 이는 나무가 글쓴이에게 바쁜 근무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안식을 주었음을 의미한다.
- ④ 글쓴이는 ‘암소’의 ‘뿔이 구부러져 안쪽으로 향’하면 인간이 ‘툼으로 잘라’서 암소를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 준다고 했다. 이는 ‘가축’이 인간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경우에 해당한다.
- ⑤ 글쓴이는 ‘저 깊은 산중 인적 끊긴 골짜기’처럼 사람 손이 닿을 수 없는 곳에서 자라는 나무와 달리 ‘이문원 동쪽 늙은 나무’가 번성하게 자랐다고 밝혔다. 이는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인간의 도움이 필요함을 밝힌 것이다.

<2025학년도 9월 모의평가 28~31번> - 수능특강 문학 p.187

**현대소설 - 윤희길, 「날개 또는 수갑」**

이 작품은 ‘동림산업’이라는 한 회사를 배경으로 설정하여, 그 회사에서 제정한 제복에 대해 사원들이 불만을 갖지만 결국 회사의 조치를 따를 수밖에 없는 소시민적 모습을 보여 준다. 이를 통해 1970년대의 사회적 특징이었던 획일주의적 군사 문화의 잔재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소설이다.

**등장인물:** 민도식, 장상태, 권 씨  
**중심 사건 1:** 장상태와 권 씨가 제복 착용 정책과 관련하여 언쟁을 벌임

**중심 사건 2:** 제복을 입지 않은 민도식이 개회식에서 전 사원이 제복 차림으로 도열해 있는 모습을 보고 외로움을 느낌

**[주제]** 구성원을 획일화하고자 하는 전체주의 문화 비판

**28. 서술상의 특징 파악 (94%)**

**정답 ④**

[지문] 그러나 도식이 보기엔 첫눈에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그는 참을성 좋게 여전히 웃고 있었다. 그것은 생산부 공원들이 본사의 사무직을 대할 때 일반적으로 갖는 비굴한 표정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적대감도 아닌 그것은 일종의 자신감의 표현임이 분명했다. 두툼한 입술과 커다란 눈이 얼핏 눈에 띄는 특징이었다.

⇒ ‘도식이 보기엔’에서 서술자가 민도식의 시선을 통해 서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자신감의 표현임이 분명했다.’, ‘두툼한 입술’, ‘커다란 눈’ 등을 통해 권 씨의 특징을 관찰하여 알려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 ① 인물의 행위를 사실적으로 그려 내어 내적 갈등을 표면화하고 있다.  
 ⇒ ‘참을성 좋게 여전히 웃고 있’는 권 씨의 행위가 사실적으로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권 씨의 내적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 ②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여 인물이 겪는 인식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A]에는 민도식이 권 씨를 바라보는 상황만이 나타난다. 따라서 과거와 현재의 교차와 인물이 겪는 인식의 변화가 드러난다고 볼 수 없다
- ③ 공간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인물이 처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A]에는 공간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이 드러나지 않는다.
- ⑤ 서술자가 인물의 경험을 삽화 형식으로 나열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 [A]에는 인물의 경험을 삽화 형식으로 나열하고 있지 않다.

**29. 작품 내용 이해 (89%)**

**정답 ③**

③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라는 말로 보아, 권 씨도 남자 사원들과 마찬가지로 ㉠을 따져 입을지를 선택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문] “물론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쪽에선 작업 중에 팔이 뭉텅 잘려져 나간 사람이 있고 그 팔 값을 찾아 주려고 투쟁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다른 한쪽에선 몸에 걸치는 옷 때문에 자기 인생을 걸러는 분들도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 권 씨는 ㉠을 마저 입을지에 대한 남자 직원들의 대화에 관심을 가지기는 하지만, 그들을 ‘팔 값을 찾아 주려고 투쟁하는 사람들’과 비교하며 ‘몸에 걸치는 옷 때문에 자기 인생을 걸려는 분들’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오답**

- ① 새로운 제복을 착용하도록 한 준비 위원회의 결정을 가리켜 ‘이미 끝난 이야기’라고 한 민도식의 말을 통해서 준비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을 마저 입을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협약해진 분위기’는 준비 위원회의 결정에 불만을 품은 남자 직원들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과 관련된 문제로 남자 직원들 사이에 소란스러운 일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④ 아내는 ‘제복’으로 인해 ‘총각 사원 하나가 사표를 던졌다는 소문을’ 믿지 않았다. 이때 ‘제복’은 ㉠을 입는 것을 의미한다.
- ⑤ ‘검정 곤색 일색’은 ‘새로 맞춘 제복으로 단장한 남녀 전 사원’의 모습을 가리킨다. 이를 통해 사원 모두가 ㉠을 마저 입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30. 구절 의미 이해 (84%)

**정답** ⑤ ㉡는 사원들이 사복을 입은 민도식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는 반응이다.

[지문] 시내를 멀리 벗어나서 교외에 널찍하게 자리 잡은 제1 공장 앞에 당도했을 때는 벌써 개회식이 시작된 뒤였다. 공장 정문 철책 너머로 검정 곤색 일색의 운동장을 넘어다보는 순간 민도식은 갑자기 숨이 턱 막혀 움을 느꼈다. 새로 맞춘 제복으로 단장한 남녀 전 사원이 각 부서별로 군대처럼 질서 정연하게 도열해 서서 연단에 선 지휘자의 손끝을 우러러보며 사가(社歌)를 제창하기 직전의 예비 운동으로 목청을 가다듬는 헛기침들을 하고 있었다. 이윽고 공장 일대를 한바탕 들었다 놓은 우렁찬 노래가 터지기 시작했다. 노래 부르는 사원들 모두가 작당해서 ㉡ 지각한 사람을 야유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 ㉡는 홀로 ‘사복 차림으로’ ‘제1 공장 앞에 당도’한 민도식이 ‘공장 정문 철책 너머로’ 제복을 입고 도열하여 사가를 제창하는 사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느낀 기분을 나타낸 것이다.

**오답**

- ① 사무직 직원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권 씨는 그들을 돌아다보며 ㉠와 같이 반응하고, 장상태에게 ‘저도 모르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 ② 장상태가 ‘화를 벌컥 내면서 큰 소리로’ 미스 윤에게

“이봐, 저기 앉은 저 사람 내가 좀 보잔다고 전해!” 라고 명령하자, 미스 윤은 ㉢와 같이 반응했다.

- ③ 아내는 남편의 회사 사원이 ‘강제로 모가지가 잘린 거라고 굳게 믿고 있’는 상황에서 ‘밍기적거리고만 있는 남편’을 걱정하여 ㉣와 같이 반응한다.
- ④ 민도식은 ‘새로 맞춘 제복으로 단장한 남녀 전 사원’이 ‘군대처럼 질서 정연하게 도열’한 모습을 보고서 ㉤와 같이 반응한다.

31. <보기>에 따른 작품 감상 (57%)

① ‘중도적 주인공’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논리를 비판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집단의 논리를 따를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인물이다. ② ‘중도적 주인공’은 인식 측면에서는 집단의 논리에 숨겨진 문제를 읽어 내는 주체적인 관점을 보인다. ③ 그러나 행동 측면에서는 자신의 인식에 따라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거나, 집단에 동화되지 못한 채 집단 논리의 수용 여부를 두고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인다.

**정답** ② 권 씨를 ‘노리갯감’으로 삼자는 장상태의 ‘눈짓’을 읽었지만 이에 선뜻 동참하지 않은 것을 보니, 민도식은 ‘~~작업 중~~ 사고를 둘러싼 ‘투쟁’과 ‘몸에 걸치는 옷’을 둘러싼 논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군,

[지문] 만만한 상대를 만난 장은 권 씨를 노리갯감으로 삼아 화풀이할 작정임을 분명히 하면서 동료들에게 은밀히 눈짓을 보냈다. 함께 놀이에 끼어들라는 뜻일 것이다.

⇒ 권 씨를 ‘노리갯감’으로 삼자는 장상태의 ‘눈짓’은 권 씨를 만만하게 보고 함께 그에게 화풀이를 하자는 제안을 담고 있다. ‘작업 중’ 사고를 둘러싼 ‘투쟁’이나 ‘몸에 걸치는 옷’을 둘러싼 논쟁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

- ① [지문] “준비 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소집한 건 처음부터 요식 행위에 지나지 않았던 거야. 경영자 독단으로 처리하지 않고 사원들의 의사를 물어서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 가지고 결정했다는 인상을 대내외에 풍길 필요가 있었던 거야.”  
⇒ 민도식은 비판적인 태도로 ‘경영자’의 숨은 의도를 파악하여 ‘준비 위원회’의 ‘회의’가 대내외에 좋은 인상을 풍기기 위해 행해진 요식행위라는 자신의 관점을 드러낸다.
- ③ [지문] “가짓것 난 필요 없어. 거기 아니면 밥 빌어 먹을 데 없는 줄 알아? 세상엔 아직도 유니폼 안 입는 회사가 수두룩하단 말야!” / 거듭되는 재촉에 이렇게 큰소리로 대거리를 했지만 결국 민도식은 뒤늦게나마 집을 나서고 말았다.

⇒ ‘세상엔 아직도 유니폼 안 입는 회사가 수두룩하’  
 다고 하는 말에서 민도식이 사원들에게 제복을  
 강요하는 ‘동림산업’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내에게 그렇게 말하면서도  
 ‘뒤늦게나마 집을 나서’ 출근하는 민도식의 모습  
 은, 그가 ‘동림산업’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면서  
 도 회사를 떠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음을 보  
 여 준다.

④ [지문] 검정 곤색의 제복들이 일치단결해 가지고 사  
 복 차림으로 꿈무니에 따라붙으려는 유일한 사람  
 을 완강히 거부하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세  
 상 전체가 온통 제복투성이인 가운데 저 혼자만  
 외톨도리로 떨어져 있는 셈이었다.

⇒ 민도식이 준비 위원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사  
 복 차림’으로 체육 대회에 간 것을 통해 그가 집  
 단의 논리를 거부하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그  
 러나 민도식이 그런 자신을 ‘꿈무니에 따라붙으  
 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그가 집  
 단에 소속되고 싶은 마음도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민도식은 ‘동림 산업’의 정책을 비판적으로 인식하면  
 서도 제복 차림을 한 채 체육 대회에 참여한 사원들  
 의 ‘꿈무니에 따라붙’을지 행사에 ‘불참’하고 뒤돌아  
 서서 나올지 결정하지 못한 채 ‘제1 공장’ 정문 앞  
 에서 ‘불박여 버린 듯’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민도식이 ‘동림산업’의 정책에 대  
 한 비판을 적극적인 행동으로 옮기지 결정하지 못하  
 고 머뭇거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제] 참소에 대한 경계와 결백의 호소

(다) 고전 시가 - 조준성, 「호아곡」

아이야 구럭 망태 찾아라 서산에 날 늦겠다

밤 지낸 고사리 벌써 아니 자랐으랴

이 몸이 이 나물 아니면 조석(朝夕) 어이 지내리

▶ 서산에서 고사리를 캐며 즐기는 삶(제1수)

아이야 도롱이 샷갓 차려라 동쪽 시내에 비 내린다

기나긴 낚싯대에 미늘 없는 낚시 매어

저 고기 놀라지 마라 내 흥 겨워하노라

▶ 동쪽 골짜기에서 낚시를 하며 즐기는 삶(제2수)

아이야 죽조반(粥早飯) 다오 남쪽 논밭[南畝]에 일  
 많구나

서투른 따비는 누구와 마주 잡을꼬

두어라 성세궁경(聖世躬耕)도 역군은(亦君恩)이시  
 니라

▶ 남쪽 논밭에서 농사를 지으며 즐기는 삶(제3수)

아이야 소 먹여 내어라 북쪽 마을에서 새 술 먹자

잔뜩 취한 얼굴을 달빛에 실어 오니

어즈버 희황상인(羲皇上人)을 오늘 다시 보는구나

▶ 북쪽 마을에서 술을 마시며 즐기는 삶(제4수)

[주제] 전원에서 즐기는 은거 생활의 즐거움

32. 작품 간 공통점 · 차이점 파악 (84%)

정답 ①

(가) 허술한 배 두신 분네는 모두 조심하소서

⇒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험난한 정치 현실을 경계하라  
 는 요구를 전달하고 있다.

(나) 온 놈이 온 말을 하여도 임이 짐작하소서

⇒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참소를 분별하여 판단해달라  
 는 요구를 전달하고 있다.

(다) 아이야 구럭 망태 찾아라 서산에 날 늦겠다

⇒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자기가 필요로 하는 도구나  
 자신이 바라는 행동에 대한 요구를 전달하고 있다.

오답

② (다) <제2수>의 종장은 ‘고기’라는 자연물을 의인화  
 하여 화자와 자연의 유대감을 나타낸다. 그러나 (가)  
 와 (나)에는 대상의 의인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 (가) X / (나) X / (다) O

③ (가)~(다) 모두 구체적으로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미래에 대한 전망을 나타내는 내용을 찾을 수 없다.

⇒ (가) X / (나) X / (다) X

④ (가)~(다) 모두 물음의 방식을 활용한 표현을 찾을  
 수 있으나 이러한 표현들이 대상에 대한 친밀감을 표  
 현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025학년도 9월 모의평가 32~34번> - 수능특강 문학 p.318

(가) 고전 시가 - 정철의 시조

풍파(험난한 정치 현실)에 일렁이던 배(시련을 겪은 관료)  
 어디로 갔단 말인가

구름(험난한 정치 현실)이 험하거늘 처음 나왔는가 어  
 찌하여

허술한 배(신진 관료) 두신 분네는 모두 조심하소서

[주제] 험난한 정치 현실에 대한 경계

(나) 고전 시가 - 정철의 시조

심의산(深意山)(깊은 뜻) 서너 바퀴 감돌아 휘돌아  
 들어

오뉴월 한낮에 살얼음 영킨 위에 된서리 섞어 치고  
 자취는 내렸거늘 보았는가 임아 임아(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질 정도로 참혹한 자신의 심정을 보았는지 묻고 있음)

온 놈이 온 말을 하여도(비방과 모략이 난무하는 현실)  
 임(임금)이 짐작하소서

⇒ (가) X / (나) X / (다) X

⑤ (가)~(다) 모두 풍경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계절의 변화상을 그려 내는 내용을 찾을 수 없다.

⇒ (가) X / (나) X / (다) X

### 33. 반응 적절성 평가 (82%)

**정답** ③ <제1수> 중장과 <제3수> 중장에서 나타나는 화자의 걱정은 각 수의 중장에서 강화되고 있다.

⇒ <제1수>의 중장에서 밤새 자란 고사리를 캐어야 한다는 걱정이 나타나고, 중장의 고사리를 캐어 조석의 끼니를 이으려는 상황과 연결해 볼 때 중장에서 걱정이 강화된다고 볼 수 있다. <제3수>의 중장에서도 농기구를 다루는 데 서툰 자신이 누구와 같이 농사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걱정이 나타난다. 그러나 <제3수>의 중장은 농사를 지으며 사는 삶에 대한 즐거움을 드러낸 내용이므로 화자의 걱정을 강화했다고 볼 수 없다.

#### 오답

- ① 각 수의 첫 음보를 ‘아이야’라는 동일한 시어로 제시하여 시상 전개에 안정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② <제1수>에서는 ‘구력 망태’를, <제2수>에서는 ‘도롱이 샷’, ‘뉘싯대’ 등의 생활 도구를 언급하여 화자가 전원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제1수>의 중장에서는 ‘나물’을, <제3수>의 초장에서는 ‘죽조반’을 언급하여 화자의 소박한 생활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제4수>의 중장은 ‘어즈버’라는 감탄 표현을 활용하여 술을 마시며 삶을 즐기는 화자의 만족감을 부각하며 시상을 집약하고 있다.

### 34. <보기>에 따른 작품 감상 (80%)

① 정철과 조준성이 살았던 16세기 후반~17세기 초반에는 정치 참여 과정에서 당파 간의 대립과 투쟁이 극심해지면서 정치적 공격을 받은 문인들이 벼슬에서 파직, 유배되거나 산림에 은거하는 등 정계에서 소외된 상태에 놓이는 경우가 잦았다. ② 이 과정에서 문인들은 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저이 현실에 대한 비판과 경계, 처세관, 자연에 몰입하려는 태도 등을 작품에 드러내었다.

**정답** ③ ‘심의산’이 화자의 심회이고 ‘오뉴월’의 ‘자취눈’이 화자의 복잡한 심정을 비유한 표현이라면, (나)의 초장과 중장에서는 당쟁의 상황에서 굳은 마음을 견지하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는 것어췌군.

⇒ ‘심의산’이 화자의 심회를, ‘오뉴월’의 ‘자취눈’이 화자의 복잡한 심정을 비유한 표현이라면, (나)의 초장과 중장은 당파 간의 대립과 투쟁으로 인해 만신창이가 되어 버릴 정도로 고통받는 자신의 심리적 정황을 표현한 것이다.

#### 오답

- ① 세찬 바람과 험한 물결을 아울러 이르는 말인 ‘풍파’가 정치 현실이고 ‘일렁이던 배’가 시련을 겪은 관료라면, (가)의 초장 ‘어디로 갔단 말인가’는 당쟁에 휘말려 시련을 겪은 관료가 정치적으로 소외된 상태에 놓인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험한 구름은 풍파를 예측하게 한다는 점에서 ‘구름이 험하거늘’이 정치적 위기의 조짐에 해당하고 ‘허술한 배 두신 분네’가 신진 관료라면, (가)의 중장은 화자가 ‘구름이 험’한 상태에서 ‘처음 나’온 신진 관료들에게 험난한 정계에서 처신에 조심하라고 경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온 놈이 온 말을 하’는 상황이 비방과 모략이 난무하는 현실이고 ‘임’이 임금이라면, (나)의 중장은 화자가 임금이 온갖 참소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고 자신의 결백을 믿어달라고 호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미늘 없는 낚시’가 욕심 없이 사는 삶을 의미한다면, (다)의 <제2수> 중장은 화자가 자연물인 ‘고기’를 의인화하여 자연과 더불어 지내는 화자의 흥과 즐거움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